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72호 [주제 제25781호] 주제 106(2017)년 9월 29일 (금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21일부터 24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일본의 NHK방송, 도이쉴랜드 반세연단 인터넷홈페이지, 인터넷홈페이지 《한지지도소식》과 《한지지도소식》과 《한지지도소식》을 위한 국제전선발파기, 민주종교

주제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황해남도 과일군을 현지지도하심 소식을 보도하였다.

도이쉴랜드반세연단 인터넷홈페이지 《한지지도소식》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삼천포와 최전

절세위인들의 영상을 절형상한 모자이크벽화를

여러 단위에 모시었다

절세위인들의 영상을 절형상한 모자이크벽화를 여러 단위에 모시었다.

혁명의 생산 백투산에 오르시어 꽃잎이 장식된방한 내 조국의 맑고 향기로운 미래를 축복해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지애로운 영상을 절형상한 모자이크벽화 《만공화》이

은 인민의 사랑받는 현대적인 옷장신기지로 훌륭히 전변되었다.

안교 모자이크벽화를 모시는 사업에 온갖 지성을 다 바치었다.

남강도 미제와 총결산할 멸적의 의지안고 경제강국건설에 박차를 가하자

자력자강의 승전포성으로 무자비한 징벌을

황해북도 당 조직들에서

미제의 남강도적인 반공화국 제압작전으로 조선전쟁에 대처하여 황해북도의 당조직들에서 자력자강의 승전포성을 더욱 높이 울려나가기 위한 정치사상사업을 총체적으로 벌려나가고있다.

당위원회에서는 미지팡이 트럼프와 이에따라선공공에 대한 무서운 보복행위를 안은 대중이 자력자강의 창조전선에 더욱 신장감이 밀려들도록 하기 위하여 정치사상사업을 총체적으로 벌려나가고있다.

당위원회에서는 절강성중심으로 당을 역격같이 벌려온 김일성-김정일동지께서 영웅적기개가 넘겼을 때 처지도 높고있다.

당위원회에서는 절강성중심으로 당을 역격같이 벌려온 김일성-김정일동지께서 영웅적기개가 넘겼을 때 처지도 높고있다.

조선인민은 흉악한 원수들에게 보다 무서운 철추를 내릴것이다

여러 나라 정당, 단체들 성명 발표

무진막강한 군력을 과시하며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공화국의 위상에 구도의 불안을 느낀 미국의 트럼프정권이 유엔무대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래 처음으로 세계의 커다란 분노와 경악을 자아내고있다.

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공물에 동조하지 말고 트럼프를 고립시키며 대조선(세계적인)을 철폐하도록 노력할것을 호소하였다.

조선은 자기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말살하려는 트럼프당들에게 뒤통수를 보여줄것이다.

세계사상연구 중앙위원회가 우리 공화국을 완전히 침탈시켰다고 하면서 미국침략자의 폭언을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우크라이나 《선군의 모퉁》 주제사상연구회에서는 이렇게 강조하였다.

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공물에 동조하지 말고 트럼프를 고립시키며 대조선(세계적인)을 철폐하도록 노력할것을 호소하였다.

조선은 자기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말살하려는 트럼프당들에게 뒤통수를 보여줄것이다.

세계사상연구 중앙위원회가 우리 공화국을 완전히 침탈시켰다고 하면서 미국침략자의 폭언을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100개의 단위 년간계획 완수

석탄증산의 불길이 세차게 라오르고있는 평안남도안의 탄전들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28개의 청년동맹대 그리고 36개의 굴진조가 있다.

탄전의 북소리가 더 높이 울려 퍼지였다.

탄전의 북소리가 더 높이 울려 퍼지였다.

탄전의 북소리가 더 높이 울려 퍼지였다.

탄전의 북소리가 더 높이 울려 퍼지였다.

탄전의 북소리가 더 높이 울려 퍼지였다.

탄전의 북소리가 더 높이 울려 퍼지였다.

정론 악마의 제국을 불사르라!

진정 원하노라.
이 소박한 글마저 무서운 폭탄이 되기를, 중요도 떨어지는 이 한자한자의 회화점에 분노의 핵을 세워 저 악의 제국에 벼락을 칠수 있기를, 이 황화산의 노성이 불출기가 되고 비수가 되어 원수의 숨통을 찌르기를 정말로 바라노라.

우리의 위대한 태양을 감히 건드리고 세상의 그 어느 인민보다도 비할바없이 숭고하고 성대한 조선인민의 귀중한 목숨과 성스러운 나의 조국의 존엄에 대해 미국인 히틀러인 미치광이 트럼프라는 놈이 《월필》을 지어엮었기에!

그날엔 누구나 노래와 웃음을 거두었다. 총창같이 세워달라는 병사만이 아닌 이 땅의 어머니들과 철부지 아이들마저 근엄한 눈빛으로 미국이란 저주받은 땅을 무섭게 노려보았다. 아무때 어디서나 그 누구든 입을 열면 미치광이 트럼프라와 망조가든 미국이라는 말을 불을 토하듯 쏟아내며 나라의 력사에서 지극히 있어서는 안 되는 격노의 함성이 저리와 마음과 짐집을 뛰놀고 온 강토를 신난 피도마냥 농취케 한다. 이 땅이 흥재로 수순보다 더 거대한 힘을 세우고 저 침략의 피를 단때에 제가무와 흉년으로 만들어 지구밖으로 영영 날려보낼 때까지의 의지로 맞서었다. 조선의 말 못하는 산천과 길가의 나무를, 한쪽이 사나 불마져, 땅바닥의 작은 돌맹이마저 목숨을 뛰쳐 하나의 불덩이로 되었다.

그날엔, 백두산호랑이의 노성이 울린 바로 그날 이 나라의 하늘도 맑고도 푸르며 요란한 번개와 우뢰를 멈출줄 몰랐다. 얼마전 태양으로 날아간 우리의 중장거리전력탄도 로켓트 《화성-12형》의 비행운이 그어진 바로 그 하늘이었다.

아름답고야 할 이 행성이 무슨 화산을 만났기에 모양새까지 흉물스러운 히스테리틱인 정신병사, 인류의 고향과 재부를 빼앗아갈려는 정사공룡들이 세계의 정치무대를 활개치는 무지하고 비극적인 현실을 세습해야 하는가. 중요도 탐욕, 도박과 기만을 정치로 하는 이런 마귀야망자들을 《초대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집권자로 내세울수밖에 없는 미국에 수직과 저주가 있노라. 제2차 세계대전까지 지구북반구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병모에서 무려 2,000여만명의 희생자가 났다고 했다. 그런데 이 좁은 조선땅에서 그보다 500만이나 더 많은 생명을 떨쳐냈다고 고이되었으니 이는 조선인민만이 아닌 사실상 인류전체의 노예화도 서슴지 않을 미국식인종주의의 야수성을 세계앞에 드러낸 천대사의 최악의 사례이다.

이 땅이 어떤 나라이기에!
조선인민이 어떤 인민이기에!
이제는 《세계》도 넘어 그 무슨 《선계라적》도 《예방전경》도 아니다. 이 인민의 국토와 력사, 창조적재부와 생명까지도 완전히 파괴할것을 꿈꾸며 이 전쟁과 죽음의 상인들 죽은의 공포와 살인의 수순만을 계산하고있다. 선필들이 퍼와 목숨을 마쳐 유산으로 물려준 우리 혁명의 모든 것, 위대한 태양의 한성이 된 붉은기과 사회주의 이 세상과 로동당의 어머니를, 포근한 나의 집과 식솔들의 웃음소리와 딸간 영두부를 비벼주고있는 귀여운 우리 아기들, 고난의 번개를 걸어 마시며 우리의 눈앞에 다가왔다고 가슴세이던 그 행복을 바로 저 미국의 늑대늑상냥이가 감히 어찌보려 하고있다.

어머니, 난 오늘 소년군대를 분대장이 됐어요. 난 미국놈을 내 손으로 꼭 잡아 죽이겠어요.
평범한 한가정에서도 이런 말이 오가는 분노의 세월이다.
핵을 핵공공만 하게 만들어달라, 나는 그것을 가슴에 품고 위생공은 침략자가 있는 그 어디든 거기에 가서 원한을 풀어야겠다고 수도의 한 전쟁보병이 부들부들 떨며 되짚던 그 목소리가 왜 이리도 상상이 되게 하는가.

목숨같은 건 아깝지 않습니다. 딸씨, 하루빨리 전쟁의 시각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우리의 앞길을 가를 쓰고 막아서는 미제야수놈들을 붙여잡고서라도 결판을 봐야겠습다라고 황철의 쇠를 내민들은 이를 알고있다. 나는 무더기였다. 이 상공치에 핵폭탄을 실어달라, 손이 잘리우면 이발로 바퀴를 돌려서라도 원수

들의 소굴에 거머쥔고들어가겠다고 중요한 불을 토하며 한 영예군인정년은 몸부림친다.
그러면 평화를 사랑하고 아름다운 생활과 노래를 사랑하는 사람들, 조국과 동지와 이웃을 사랑하는 그날로 고상하고 순박하며 정이 깊은 이 나라 인민이 어찌하여 이런 최후의 각오를 다지고 나서는가.
바로 그 숭고한 사랑때문이다. 바쳐온 피와 땀, 눈물과 희생만이 아니다. 산 좋고 물 맑은 살기 좋은 우리 조국, 너와 나 우리 모두가 자자손손 살아갈 어머니의 품과 같은 이 땅이다. 5천년의 유구한 력사를 안고 종방의 빛나는 국가로 존엄연처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때때로 가슴세이듯 불려보던 애국가며 걸려오는 국기를 바라보며 이룰수 없는 격정에 휩싸여 눈물을 적시는 이 영광의 세월, 원만한 뜨거운 충정과 애국의 정신으로 산천이 추르러지고 황금물결 설레이는 전야가 펼쳐지며 수많은 영웅적위훈이 기록되고 골짜기 되어 입머서는 황홀한 거미와 불명시대의 풍광을, 그 모든것이 하늘땅에 가득차 나가고 그대로 인민의 모습인 이 위대한 조선!

사람마다가 무서운 영웅이며 고상마다가 사회주의의 존엄한 오세인 자랑스러운 불멸의 공화국을 감히 그 누가 건드린단 말인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수령의 영도밑에 자기 위업의 성장성과 자기의 힘을 믿고 조국을 수호하기 위하여 일떠선 군대와 인민은 그 무엇보다도 정복할수 없다》는 것. 바로 이것이 력사의 진리이고 법칙입니다.》

미국놈과 제일 많이 싸워보고 양키들을 제일 많이 때려놓아 별세 1950년대에 미제에게서 첫 항복서를 받았던 조선사람들은 그 어느 인민보다 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흉악성에 대해 잘 알고있다. 오늘날 미국이 배일같이 교활하고 그의 추종세력들과 명지론 나라들이 합장하는 《조선의 핵과 미제일위협》이란 다름없이 아니다. 세계에 대한 위협이나 지역의 안정과피도 아니며 오히려 정의를 우리 국가의 핵은 평화와 발전의 절대적담보로 되고있다. 미국이 당장 세계의 종말이라도 닥쳐온듯이 인류의 머리를 혼돈시키며 말파하는것은 조선이 강대국으로 떠오르면 더는 전쟁과 위기에 대한 광고의 구실이 없게되고 동북아시아에서 자기의 통치력과 패권권익의 공익을 먼저 못하게 되기때문이다. 장사꾼 트럼프라는 놈이 있는 미국이 70여년동안 부른을 벌어들인 거대한 시장을 잃게 되는것과 같은 의미이다.

세상사람들이 21세기가 아니라 중세기에나 볼수 있는 미친 소리, 유엔주재에 올라 전 세계를 향해 궤전 정경무들의 공갈과 말질을 금지 못하는 이놈의 미제일위협은 전쟁공포심을 조성하여 더 많은 살인장비를 팔아 돈을 벌어들이기 위한 더러운 악행일수 있다.
그래 우리 조선이, 이 성대한 인민이, 누구보다 행복해야 할 나라가 어찌하여 미국이라는 더러운 나라의 제련과 리역을 위해 이런 고통과 불행을 강요당해야 한단 말인가.

긴긴 세월 우리 민족을 모질게도 피륙적은 미제와 열강들의 마수를 절단코 혁명의 붉은 칼로 끊어버리고 당당하게 살려는 조선의 선택을 국제사회에 도전하는 범죄로 때도하여 유엔에까지 끌고간 미제, 그대 손을 들고 추종한 인간들은 도대체 어떤 죄와 함성과 낯짝을 가졌는지, 전정 이런 무정의앞에 어쩔수 없는것이 오늘날의 세계란 말인가.

인류의 수백만년 력사, 대담해보라. 어찌하여 세계는 정의를 외면한채 저 하나의 편안과 인력만을 위해 순결하고 성대한 한 나라 인민을 도살하려는 승냥이의 비위를 맞추어 할만큼 시골은 세계가 되었는가.
우리는 이 지구를 거대한 독립제벌들이 한손에 거머쥐고 리온과 비위에 따라 전쟁도 지시하고 한 국가의 전복과 놀라운 사건도 만들어낸다는 흑악의 사실을 잘 알고있다. 흑시 행성이 비좁아 인류를 전쟁과 재난을 일으켜 줄여야 한다는 인종말살의 두목이 트럼프라는 놈이 아닌지, 무서운 병마를 퍼뜨리서라도 인류를 대량살상할것

을 시도한 그 살인자의 현금이 아닌지, 비열한 기생부기로 한 나라를 고온속에 라들게 하고 한 나라에는 무서운 핵을 불어왔다는 그 식인종우여가 아닌지 우리는 인민의 장검으로 이 승냥이놈의 배를 갈라 그 머를 썰어냈다.
그렇지 않으면야 어찌 저 하늘의 태양에 대고까지 마구 악담을 퍼뜨릴수 있겠는가. 그 태양을 내리워 이 땅만이 아닌 행성 전체를 영원한 어둠과 빙하속에 처박아넣을 것이라는 세계의 저, 인류의 불행, 전쟁과 파멸을 먹어야 사는 악마가 아닐수 없다.
감히 어디에다 대고!
태양의 힘이 얼마나 거대하기에, 이 나라의 백두산이 얼마나 높고 태양을 응위하여 불려보던 애국가며 걸려오는 국기를 바라보며 이룰수 없는 격정에 휩싸여 눈물을 적시는 이 영광의 세월, 원만한 뜨거운 충정과 애국의 정신으로 산천이 추르러지고 황금물결 설레이는 전야가 펼쳐지며 수많은 영웅적위훈이 기록되고 골짜기 되어 입머서는 황홀한 거미와 불명시대의 풍광을, 그 모든것이 하늘땅에 가득차 나가고 그대로 인민의 모습인 이 위대한 조선!

백두산호랑이의 그 결단은 사랑하는 인민, 자신보다 더 귀중한 몸으로 신성히 받들어가시는 조국과 인민을 위함이지!
하나밖에 없는 북조선보다 더 귀중한 것이 민족자존이다. 우리의 존엄을 짓밟는것을 절대로 용서치 않을것이라는것이 위대한 인민, 강철의 병장의 불타는 신념이다. 이 소박하고 정이 든 인민을 위해서 모래알도 뿌려지고 여타하라는 한방없는 심중을 고백하며서 인민을 자신의 살본이, 심장처럼 인고제시는 우리 원수님.
세상의 천갈매리같은 걸음에서도 인민을 지키고 뱃머리 내세우고있으며, 다시는 누구도 훌륭한 이 인민의 운명을 절대로 통찰하지 못하게 하려고 누구나 섣뜻 들어설수 없는 병진의 길에 걸단코 나서신 것이, 어찌 상상이나 할수 있는 일이었는가. 세상의 어느 용장도 위대도 영두조차 될수 없는 천신만신의 큰 산들을 거머안고서도 마침내 주제의 핵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워주시는 이런 강철의 인민의 영도자가 어디에 있었는가.

세대를 이어 히틀러를 조이면서도 당찬 울골에 밟고 곳곳이 이 길을 걸어온 조선인민이다. 땅이 선군을 하면 고난을 이겨내면서도 총대를 사당했고 땅이 병진을 하면 그 뜻을 밀려히 지지하고 심정으로 증명해 온 인민을 자나깨나 생각하며 인민의 그 백두같은 믿음과 신념이 고마와 혁명에 대한 열정과 신념을 때때로 가다듬으신 우리 원수님이다. 5천년 력사를 전강시키며 주제의 핵강국, 로켓트강국의 승리의 함성이 터져오를 때에도 인민의 고평과 맞바꾼것이라고 하시며 이것은 전체 조선인민의 슬라라고 내내 격하여 말쑥하신 우리 원수님.

그래서 그만 생각하면 이 나라 인민은 너무 그리고 정에 끌려가 가슴이 뭉클해지고 때때로 눈물이 맺힌다. 당과 생사고락을 함께 나누며 준원위 혁명의 생생함을 해쳐 온 인민이 너무 참고도 위대한 평평거리와 같은 황홀한 영광을 마려해주시고 황금의 바다항까지 요양하시며 아이들을 세상에 부럼없는 증진들에 앉혀주시는 그 사랑의 해와 달들은 인민의 가슴속에 깊이 스며들었다. 우리는 당신앙에 모든다는 신념을 노래하는 이 천만아들딸들앞에, 당신의 믿음이며 우리는 지구도 불것이라는 이 인민앞에 자신의 잠과 원성이 부추신듯 안락까움을 토로하며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를 부르던 시대가 오늘날의 현실로 되도록 하기 위하여 현실분투한것이라고는 명약으로 온 나라를 눈물여 젖게 하신 우리의 위대한 어머니이며,
조국과 혁명, 인민의 운명을 한몸에 떠맡아안고 이끌어오신 이 50년, 100년 같은 세월에 밟고라도 초강대강권군을 초고고도로 집주재시였지만 그 고생같은 다 감추시고 인민에게는 기쁨의 소식만을 안겨주시며 인민과 더불어 생의 보람과 희열을 느끼시는 이처럼 순결한본이 어찌 있었는가.

서방의 어느 정치가가, 어느 인민이 이런 숭고한 정과 사랑의 세계를 리해할수 있겠는가.
이 나라에 미친 증오의 황화산은 바로 우리모두의 운명이고 조국이며 삶의 무궁한 영광인 우리의 위대한 태양에 감히 도전해 나선 가즈드러운 원수들에게 대한 용서할수

없는 분노이다. 태양을 건드리면 지구가 썩어진다. 우리의 태양을 모욕한 놈은 미치광이 트럼프라는 놈이 아닌 지구상의 그 어느 누구도 아닌 수천만 조선인민의 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생명을 더 귀중하다. 행복한 사회주의의 우리 집도 더없이 귀중하다. 그러나 천만의 식솔을 통해 업고 웃자락에 감싸안으며 하루속히 안목을 누리게 하소서 그렇게도 눈물겨운 헌신의 고통길을 볼같이 쳐쳐오신 위대한 어머니를 위해 우리는 죽음도 두려움없이 결사옹위의 성전에 나설것이다.
평화가 왜 귀중하지 않나. 우리의 거리들과 대 가정의 웃음소리와 후대의 앞날이 어찌 소중하지 않나. 우리가 세운 아름다운 거리들과 굽소러올리는 아이들의 교정, 사랑을 추삭하는 청년남녀들의 몸도 소중하다. 고난을 참고 지극히 싸우며 이제 볼로 다스리시려는 힘의 의지를 언명하신 우리 원수님.
백두산호랑이의 그 결단은 사랑하는 인민, 자신보다 더 귀중한 몸으로 신성히 받들어가시는 조국과 인민을 위함이지!

하나밖에 없는 북조선보다 더 귀중한 것이 민족자존이다. 우리의 존엄을 짓밟는것을 절대로 용서치 않을것이라는것이 위대한 인민, 강철의 병장의 불타는 신념이다. 이 소박하고 정이 든 인민을 위해서 모래알도 뿌려지고 여타하라는 한방없는 심중을 고백하며서 인민을 자신의 살본이, 심장처럼 인고제시는 우리 원수님.
세상의 천갈매리같은 걸음에서도 인민을 지키고 뱃머리 내세우고있으며, 다시는 누구도 훌륭한 이 인민의 운명을 절대로 통찰하지 못하게 하려고 누구나 섣뜻 들어설수 없는 병진의 길에 걸단코 나서신 것이, 어찌 상상이나 할수 있는 일이었는가. 세상의 어느 용장도 위대도 영두조차 될수 없는 천신만신의 큰 산들을 거머안고서도 마침내 주제의 핵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워주시는 이런 강철의 인민의 영도자가 어디에 있었는가.

세대를 이어 히틀러를 조이면서도 당찬 울골에 밟고 곳곳이 이 길을 걸어온 조선인민이다. 땅이 선군을 하면 고난을 이겨내면서도 총대를 사당했고 땅이 병진을 하면 그 뜻을 밀려히 지지하고 심정으로 증명해 온 인민을 자나깨나 생각하며 인민의 그 백두같은 믿음과 신념이 고마와 혁명에 대한 열정과 신념을 때때로 가다듬으신 우리 원수님이다. 5천년 력사를 전강시키며 주제의 핵강국, 로켓트강국의 승리의 함성이 터져오를 때에도 인민의 고평과 맞바꾼것이라고 하시며 이것은 전체 조선인민의 슬라라고 내내 격하여 말쑥하신 우리 원수님.

그래서 그만 생각하면 이 나라 인민은 너무 그리고 정에 끌려가 가슴이 뭉클해지고 때때로 눈물이 맺힌다. 당과 생사고락을 함께 나누며 준원위 혁명의 생생함을 해쳐 온 인민이 너무 참고도 위대한 평평거리와 같은 황홀한 영광을 마려해주시고 황금의 바다항까지 요양하시며 아이들을 세상에 부럼없는 증진들에 앉혀주시는 그 사랑의 해와 달들은 인민의 가슴속에 깊이 스며들었다. 우리는 당신앙에 모든다는 신념을 노래하는 이 천만아들딸들앞에, 당신의 믿음이며 우리는 지구도 불것이라는 이 인민앞에 자신의 잠과 원성이 부추신듯 안락까움을 토로하며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를 부르던 시대가 오늘날의 현실로 되도록 하기 위하여 현실분투한것이라고는 명약으로 온 나라를 눈물여 젖게 하신 우리의 위대한 어머니이며,
조국과 혁명, 인민의 운명을 한몸에 떠맡아안고 이끌어오신 이 50년, 100년 같은 세월에 밟고라도 초강대강권군을 초고고도로 집주재시였지만 그 고생같은 다 감추시고 인민에게는 기쁨의 소식만을 안겨주시며 인민과 더불어 생의 보람과 희열을 느끼시는 이처럼 순결한본이 어찌 있었는가.

서방의 어느 정치가가, 어느 인민이 이런 숭고한 정과 사랑의 세계를 리해할수 있겠는가.
이 나라에 미친 증오의 황화산은 바로 우리모두의 운명이고 조국이며 삶의 무궁한 영광인 우리의 위대한 태양에 감히 도전해 나선 가즈드러운 원수들에게 대한 용서할수 없는 분노이다. 태양을 건드리면 지구가 썩어진다. 우리의 태양을 모욕한 놈은 미치광이 트럼프라는 놈이 아닌 지구상의 그 어느 누구도 아닌 수천만 조선인민의 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생명을 더 귀중하다. 행복한 사회주의의 우리 집도 더없이 귀중하다. 그러나 천만의 식솔을 통해 업고 웃자락에 감싸안으며 하루속히 안목을 누리게 하소서 그렇게도 눈물겨운 헌신의 고통길을 볼같이 쳐쳐오신 위대한 어머니를 위해 우리는 죽음도 두려움없이 결사옹위의 성전에 나설것이다.
평화가 왜 귀중하지 않나. 우리의 거리들과 대 가정의 웃음소리와 후대의 앞날이 어찌 소중하지 않나. 우리가 세운 아름다운 거리들과 굽소러올리는 아이들의 교정, 사랑을 추삭하는 청년남녀들의 몸도 소중하다. 고난을 참고 지극히 싸우며 이제 볼로 다스리시려는 힘의 의지를 언명하신 우리 원수님.
백두산호랑이의 그 결단은 사랑하는 인민, 자신보다 더 귀중한 몸으로 신성히 받들어가시는 조국과 인민을 위함이지!

하나밖에 없는 북조선보다 더 귀중한 것이 민족자존이다. 우리의 존엄을 짓밟는것을 절대로 용서치 않을것이라는것이 위대한 인민, 강철의 병장의 불타는 신념이다. 이 소박하고 정이 든 인민을 위해서 모래알도 뿌려지고 여타하라는 한방없는 심중을 고백하며서 인민을 자신의 살본이, 심장처럼 인고제시는 우리 원수님.
세상의 천갈매리같은 걸음에서도 인민을 지키고 뱃머리 내세우고있으며, 다시는 누구도 훌륭한 이 인민의 운명을 절대로 통찰하지 못하게 하려고 누구나 섣뜻 들어설수 없는 병진의 길에 걸단코 나서신 것이, 어찌 상상이나 할수 있는 일이었는가. 세상의 어느 용장도 위대도 영두조차 될수 없는 천신만신의 큰 산들을 거머안고서도 마침내 주제의 핵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워주시는 이런 강철의 인민의 영도자가 어디에 있었는가.

세대를 이어 히틀러를 조이면서도 당찬 울골에 밟고 곳곳이 이 길을 걸어온 조선인민이다. 땅이 선군을 하면 고난을 이겨내면서도 총대를 사당했고 땅이 병진을 하면 그 뜻을 밀려히 지지하고 심정으로 증명해 온 인민을 자나깨나 생각하며 인민의 그 백두같은 믿음과 신념이 고마와 혁명에 대한 열정과 신념을 때때로 가다듬으신 우리 원수님이다. 5천년 력사를 전강시키며 주제의 핵강국, 로켓트강국의 승리의 함성이 터져오를 때에도 인민의 고평과 맞바꾼것이라고 하시며 이것은 전체 조선인민의 슬라라고 내내 격하여 말쑥하신 우리 원수님.

하나밖에 없는 북조선보다 더 귀중한 것이 민족자존이다. 우리의 존엄을 짓밟는것을 절대로 용서치 않을것이라는것이 위대한 인민, 강철의 병장의 불타는 신념이다. 이 소박하고 정이 든 인민을 위해서 모래알도 뿌려지고 여타하라는 한방없는 심중을 고백하며서 인민을 자신의 살본이, 심장처럼 인고제시는 우리 원수님.
세상의 천갈매리같은 걸음에서도 인민을 지키고 뱃머리 내세우고있으며, 다시는 누구도 훌륭한 이 인민의 운명을 절대로 통찰하지 못하게 하려고 누구나 섣뜻 들어설수 없는 병진의 길에 걸단코 나서신 것이, 어찌 상상이나 할수 있는 일이었는가. 세상의 어느 용장도 위대도 영두조차 될수 없는 천신만신의 큰 산들을 거머안고서도 마침내 주제의 핵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워주시는 이런 강철의 인민의 영도자가 어디에 있었는가.

세대를 이어 히틀러를 조이면서도 당찬 울골에 밟고 곳곳이 이 길을 걸어온 조선인민이다. 땅이 선군을 하면 고난을 이겨내면서도 총대를 사당했고 땅이 병진을 하면 그 뜻을 밀려히 지지하고 심정으로 증명해 온 인민을 자나깨나 생각하며 인민의 그 백두같은 믿음과 신념이 고마와 혁명에 대한 열정과 신념을 때때로 가다듬으신 우리 원수님이다. 5천년 력사를 전강시키며 주제의 핵강국, 로켓트강국의 승리의 함성이 터져오를 때에도 인민의 고평과 맞바꾼것이라고 하시며 이것은 전체 조선인민의 슬라라고 내내 격하여 말쑥하신 우리 원수님.

그래서 그만 생각하면 이 나라 인민은 너무 그리고 정에 끌려가 가슴이 뭉클해지고 때때로 눈물이 맺힌다. 당과 생사고락을 함께 나누며 준원위 혁명의 생생함을 해쳐 온 인민이 너무 참고도 위대한 평평거리와 같은 황홀한 영광을 마려해주시고 황금의 바다항까지 요양하시며 아이들을 세상에 부럼없는 증진들에 앉혀주시는 그 사랑의 해와 달들은 인민의 가슴속에 깊이 스며들었다. 우리는 당신앙에 모든다는 신념을 노래하는 이 천만아들딸들앞에, 당신의 믿음이며 우리는 지구도 불것이라는 이 인민앞에 자신의 잠과 원성이 부추신듯 안락까움을 토로하며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를 부르던 시대가 오늘날의 현실로 되도록 하기 위하여 현실분투한것이라고는 명약으로 온 나라를 눈물여 젖게 하신 우리의 위대한 어머니이며,
조국과 혁명, 인민의 운명을 한몸에 떠맡아안고 이끌어오신 이 50년, 100년 같은 세월에 밟고라도 초강대강권군을 초고고도로 집주재시였지만 그 고생같은 다 감추시고 인민에게는 기쁨의 소식만을 안겨주시며 인민과 더불어 생의 보람과 희열을 느끼시는 이처럼 순결한본이 어찌 있었는가.

서방의 어느 정치가가, 어느 인민이 이런 숭고한 정과 사랑의 세계를 리해할수 있겠는가.
이 나라에 미친 증오의 황화산은 바로 우리모두의 운명이고 조국이며 삶의 무궁한 영광인 우리의 위대한 태양에 감히 도전해 나선 가즈드러운 원수들에게 대한 용서할수 없는 분노이다. 태양을 건드리면 지구가 썩어진다. 우리의 태양을 모욕한 놈은 미치광이 트럼프라는 놈이 아닌 지구상의 그 어느 누구도 아닌 수천만 조선인민의 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생명을 더 귀중하다. 행복한 사회주의의 우리 집도 더없이 귀중하다. 그러나 천만의 식솔을 통해 업고 웃자락에 감싸안으며 하루속히 안목을 누리게 하소서 그렇게도 눈물겨운 헌신의 고통길을 볼같이 쳐쳐오신 위대한 어머니를 위해 우리는 죽음도 두려움없이 결사옹위의 성전에 나설것이다.
평화가 왜 귀중하지 않나. 우리의 거리들과 대 가정의 웃음소리와 후대의 앞날이 어찌 소중하지 않나. 우리가 세운 아름다운 거리들과 굽소러올리는 아이들의 교정, 사랑을 추삭하는 청년남녀들의 몸도 소중하다. 고난을 참고 지극히 싸우며 이제 볼로 다스리시려는 힘의 의지를 언명하신 우리 원수님.
백두산호랑이의 그 결단은 사랑하는 인민, 자신보다 더 귀중한 몸으로 신성히 받들어가시는 조국과 인민을 위함이지!

하나밖에 없는 북조선보다 더 귀중한 것이 민족자존이다. 우리의 존엄을 짓밟는것을 절대로 용서치 않을것이라는것이 위대한 인민, 강철의 병장의 불타는 신념이다. 이 소박하고 정이 든 인민을 위해서 모래알도 뿌려지고 여타하라는 한방없는 심중을 고백하며서 인민을 자신의 살본이, 심장처럼 인고제시는 우리 원수님.
세상의 천갈매리같은 걸음에서도 인민을 지키고 뱃머리 내세우고있으며, 다시는 누구도 훌륭한 이 인민의 운명을 절대로 통찰하지 못하게 하려고 누구나 섣뜻 들어설수 없는 병진의 길에 걸단코 나서신 것이, 어찌 상상이나 할수 있는 일이었는가. 세상의 어느 용장도 위대도 영두조차 될수 없는 천신만신의 큰 산들을 거머안고서도 마침내 주제의 핵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워주시는 이런 강철의 인민의 영도자가 어디에 있었는가.

세대를 이어 히틀러를 조이면서도 당찬 울골에 밟고 곳곳이 이 길을 걸어온 조선인민이다. 땅이 선군을 하면 고난을 이겨내면서도 총대를 사당했고 땅이 병진을 하면 그 뜻을 밀려히 지지하고 심정으로 증명해 온 인민을 자나깨나 생각하며 인민의 그 백두같은 믿음과 신념이 고마와 혁명에 대한 열정과 신념을 때때로 가다듬으신 우리 원수님이다. 5천년 력사를 전강시키며 주제의 핵강국, 로켓트강국의 승리의 함성이 터져오를 때에도 인민의 고평과 맞바꾼것이라고 하시며 이것은 전체 조선인민의 슬라라고 내내 격하여 말쑥하신 우리 원수님.

그래서 그만 생각하면 이 나라 인민은 너무 그리고 정에 끌려가 가슴이 뭉클해지고 때때로 눈물이 맺힌다. 당과 생사고락을 함께 나누며 준원위 혁명의 생생함을 해쳐 온 인민이 너무 참고도 위대한 평평거리와 같은 황홀한 영광을 마려해주시고 황금의 바다항까지 요양하시며 아이들을 세상에 부럼없는 증진들에 앉혀주시는 그 사랑의 해와 달들은 인민의 가슴속에 깊이 스며들었다. 우리는 당신앙에 모든다는 신념을 노래하는 이 천만아들딸들앞에, 당신의 믿음이며 우리는 지구도 불것이라는 이 인민앞에 자신의 잠과 원성이 부추신듯 안락까움을 토로하며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를 부르던 시대가 오늘날의 현실로 되도록 하기 위하여 현실분투한것이라고는 명약으로 온 나라를 눈물여 젖게 하신 우리의 위대한 어머니이며,
조국과 혁명, 인민의 운명을 한몸에 떠맡아안고 이끌어오신 이 50년, 100년 같은 세월에 밟고라도 초강대강권군을 초고고도로 집주재시였지만 그 고생같은 다 감추시고 인민에게는 기쁨의 소식만을 안겨주시며 인민과 더불어 생의 보람과 희열을 느끼시는 이처럼 순결한본이 어찌 있었는가.

하나밖에 없는 북조선보다 더 귀중한 것이 민족자존이다. 우리의 존엄을 짓밟는것을 절대로 용서치 않을것이라는것이 위대한 인민, 강철의 병장의 불타는 신념이다. 이 소박하고 정이 든 인민을 위해서 모래알도 뿌려지고 여타하라는 한방없는 심중을 고백하며서 인민을 자신의 살본이, 심장처럼 인고제시는 우리 원수님.
세상의 천갈매리같은 걸음에서도 인민을 지키고 뱃머리 내세우고있으며, 다시는 누구도 훌륭한 이 인민의 운명을 절대로 통찰하지 못하게 하려고 누구나 섣뜻 들어설수 없는 병진의 길에 걸단코 나서신 것이, 어찌 상상이나 할수 있는 일이었는가. 세상의 어느 용장도 위대도 영두조차 될수 없는 천신만신의 큰 산들을 거머안고서도 마침내 주제의 핵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워주시는 이런 강철의 인민의 영도자가 어디에 있었는가.

세대를 이어 히틀러를 조이면서도 당찬 울골에 밟고 곳곳이 이 길을 걸어온 조선인민이다. 땅이 선군을 하면 고난을 이겨내면서도 총대를 사당했고 땅이 병진을 하면 그 뜻을 밀려히 지지하고 심정으로 증명해 온 인민을 자나깨나 생각하며 인민의 그 백두같은 믿음과 신념이 고마와 혁명에 대한 열정과 신념을 때때로 가다듬으신 우리 원수님이다. 5천년 력사를 전강시키며 주제의 핵강국, 로켓트강국의 승리의 함성이 터져오를 때에도 인민의 고평과 맞바꾼것이라고 하시며 이것은 전체 조선인민의 슬라라고 내내 격하여 말쑥하신 우리 원수님.

그래서 그만 생각하면 이 나라 인민은 너무 그리고 정에 끌려가 가슴이 뭉클해지고 때때로 눈물이 맺힌다. 당과 생사고락을 함께 나누며 준원위 혁명의 생생함을 해쳐 온 인민이 너무 참고도 위대한 평평거리와 같은 황홀한 영광을 마려해주시고 황금의 바다항까지 요양하시며 아이들을 세상에 부럼없는 증진들에 앉혀주시는 그 사랑의 해와 달들은 인민의 가슴속에 깊이 스며들었다. 우리는 당신앙에 모든다는 신념을 노래하는 이 천만아들딸들앞에, 당신의 믿음이며 우리는 지구도 불것이라는 이 인민앞에 자신의 잠과 원성이 부추신듯 안락까움을 토로하며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를 부르던 시대가 오늘날의 현실로 되도록 하기 위하여 현실분투한것이라고는 명약으로 온 나라를 눈물여 젖게 하신 우리의 위대한 어머니이며,
조국과 혁명, 인민의 운명을 한몸에 떠맡아안고 이끌어오신 이 50년, 100년 같은 세월에 밟고라도 초강대강권군을 초고고도로 집주재시였지만 그 고생같은 다 감추시고 인민에게는 기쁨의 소식만을 안겨주시며 인민과 더불어 생의 보람과 희열을 느끼시는 이처럼 순결한본이 어찌 있었는가.

서방의 어느 정치가가, 어느 인민이 이런 숭고한 정과 사랑의 세계를 리해할수 있겠는가.
이 나라에 미친 증오의 황화산은 바로 우리모두의 운명이고 조국이며 삶의 무궁한 영광인 우리의 위대한 태양에 감히 도전해 나선 가즈드러운 원수들에게 대한 용서할수 없는 분노이다. 태양을 건드리면 지구가 썩어진다. 우리의 태양을 모욕한 놈은 미치광이 트럼프라는 놈이 아닌 지구상의 그 어느 누구도 아닌 수천만 조선인민의 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생명을 더 귀중하다. 행복한 사회주의의 우리 집도 더없이 귀중하다. 그러나 천만의 식솔을 통해 업고 웃자락에 감싸안으며 하루속히 안목을 누리게 하소서 그렇게도 눈물겨운 헌신의 고통길을 볼같이 쳐쳐오신 위대한 어머니를 위해 우리는 죽음도 두려움없이 결사옹위의 성전에 나설것이다.
평화가 왜 귀중하지 않나. 우리의 거리들과 대 가정의 웃음소리와 후대의 앞날이 어찌 소중하지 않나. 우리가 세운 아름다운 거리들과 굽소러올리는 아이들의 교정, 사랑을 추삭하는 청년남녀들의 몸도 소중하다. 고난을 참고 지극히 싸우며 이제 볼로 다스리시려는 힘의 의지를 언명하신 우리 원수님.
백두산호랑이의 그 결단은 사랑하는 인민, 자신보다 더 귀중한 몸으로 신성히 받들어가시는 조국과 인민을 위함이지!

하나밖에 없는 북조선보다 더 귀중한 것이 민족자존이다. 우리의 존엄을 짓밟는것을 절대로 용서치 않을것이라는것이 위대한 인민, 강철의 병장의 불타는 신념이다. 이 소박하고 정이 든 인민을 위해서 모래알도 뿌려지고 여타하라는 한방없는 심중을 고백하며서 인민을 자신의 살본이, 심장처럼 인고제시는 우리 원수님.
세상의 천갈매리같은 걸음에서도 인민을 지키고 뱃머리 내세우고있으며, 다시는 누구도 훌륭한 이 인민의 운명을 절대로 통찰하지 못하게 하려고 누구나 섣뜻 들어설수 없는 병진의 길에 걸단코 나서신 것이, 어찌 상상이나 할수 있는 일이었는가. 세상의 어느 용장도 위대도 영두조차 될수 없는 천신만신의 큰 산들을 거머안고서도 마침내 주제의 핵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워주시는 이런 강철의 인민의 영도자가 어디에 있었는가.

세대를 이어 히틀러를 조이면서도 당찬 울골에 밟고 곳곳이 이 길을 걸어온 조선인민이다. 땅이 선군을 하면 고난을 이겨내면서도 총대를 사당했고 땅이 병진을 하면 그 뜻을 밀려히 지지하고 심정으로 증명해 온 인민을 자나깨나 생각하며 인민의 그 백두같은 믿음과 신념이 고마와 혁명에 대한 열정과 신념을 때때로 가다듬으신 우리 원수님이다. 5천년 력사를 전강시키며 주제의 핵강국, 로켓트강국의 승리의 함성이 터져오를 때에도 인민의 고평과 맞바꾼것이라고 하시며 이것은 전체 조선인민의 슬라라고 내내 격하여 말쑥하신 우리 원수님.

그래서 그만 생각하면 이 나라 인민은 너무 그리고 정에 끌려가 가슴이 뭉클해지고 때때로 눈물이 맺힌다. 당과 생사고락을 함께 나누며 준원위 혁명의 생생함을 해쳐 온 인민이 너무 참고도 위대한 평평거리와 같은 황홀한 영광을 마려해주시고 황금의 바다항까지 요양하시며 아이들을 세상에 부럼없는 증진들에 앉혀주시는 그 사랑의 해와 달들은 인민의 가슴속에 깊이 스며들었다. 우리는 당신앙에 모든다는 신념을 노래하는 이 천만아들딸들앞에, 당신의 믿음이며 우리는 지구도 불것이라는 이 인민앞에 자신의 잠과 원성이 부추신듯 안락까움을 토로하며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를 부르던 시대가 오늘날의 현실로 되도록 하기 위하여 현실분투한것이라고는 명약으로 온 나라를 눈물여 젖게 하신 우리의 위대한 어머니이며,
조국과 혁명, 인민의 운명을 한몸에 떠맡아안고 이끌어오신 이 50년, 100년 같은 세월에 밟고라도 초강대강권군을 초고고도로 집주재시였지만 그 고생같은 다 감추시고 인민에게는 기쁨의 소식만을 안겨주시며 인민과 더불어 생의 보람과 희열을 느끼시는 이처럼 순결한본이 어찌 있었는가.



우리 군대와 인민은 반미대결전에 총력기하여 거머쥔 최후승리를 이룩할 것이다.

동태판

기층당조직들의 전투력을 더욱 높여 원수들의 제재압살책동을 짓밟개버리자

초급당의 위력을 떨치게 한 혁신적인 당사업기풍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이 극도에 이른 지금이야말로 초급당을 강화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문제다. 특히 도, 시, 군당일꾼들이 초급당사업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위치에 서야 한다.

정성시당위원회의 일꾼들이 이 문제의 중요성을 철저히 인식하고 있다. 지난 1월 정성시당위원회를 창당에 내려졌던 시당위원장 한금철동무는 인민소비품생산이 정상화되지 못하고있는데 농민을 돌리겠다. 당당지도원은 원로부족으로 하여 생긴 불거진 현상이라고 했지만 시당책임일꾼은 그것을 부정했다. 기술개진사업을 일깨웠더라면 극복될수 있었다.

시당책임일꾼은 그에게 공장을 돌아보면서 생각되는 점을 말해주면서 이 문제해결을 위해 당원들과 토론을 해보았는다고 말했다. 그러자 당당지도원은 그들과 마주앉아야 별로 신통한 대답이 나올것 같지 않아 그만 두었다고 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었다. 당당지도원은 그렇게 내려간것까지는 알았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하였는가. 제기된 문제를 논리적으로 대항을 세운 대신 우에 보고하는 식으로 초급당사업에 대한 지도를 내지 않았던 것이다.

시당책임일꾼은 이렇게 된 중요한 원인의 하나가 당당지도원에게 초급당사업을 전적으로 책임

평성시당위원회 일꾼들의 사업에서

시당책임일꾼은 깊은 문제를 풀어주기 위한 사업에 앞장서고 나섰다. 하여 공장에서는 지난 6월 10일까지 1년간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면서 혁명사적고양실도 훌륭히 꾸려놓는 성과를 거두었다.

정성시당위원회의 집행단위를 창조하는 과정에 조직부일꾼들속에서 발휘되는 긍정적 모범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도 되고 있었다.

당당지도원인 김영일동무가 시연사업소를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찾아하는 집안으로 만들어 주면 좋겠는다는 좋은 반성이 제기되었을 때였다.

시당위원회는 그 경험을 일반화하기 위한 보이기사업을 창조하였다. 이것은 일꾼들에게 초급당조직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높여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했다. 또한 조직부일꾼들에게도 따라야 할, 따라야 할기풍을, 정형화한운동의 불길을 지어주었다. 그것은 평성시당위원회가 시당사업에 앞장서고 있는 과정에 모든 면에서 앞장서서 혁명사적고양실을 꾸리기 위한 사업과 함께 위대한 수명년의 유훈을 발휘하기 위한 사업을 다같이 밀고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업에서

농출수 있다는 결론을 찾았다. 초급당사업을 전적으로 책임지자면 도, 시, 군당일꾼들의 실행이 높아야 한다. 이는 그만큼 지도할수 있다.

지난 6월 뒤고루모네기가 일 정도로 추진되지 못하는 어느 날 농장에 나갔던 시당위원회 부위원장 배영일동무는 논밭에 기일이 더 지고있는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도 그곳을 당당한 책임지도원은 뒤고루모네기에 보여준것은 실행을 높여주는 좋은 계기로 되었다.

시당일꾼들의 실행이 높아지니 초급당사업에 대한 지도에서 중대한 문제를 풀어나가게 되었다. 당시 시당일꾼들이 자기 당위에 내리도록은 순근히 기다리까지 지 되었다.

초급당조직들의 전투력이 높아지는 속에 시에서는 사회혁신공공사업 등 급속도로 일감을 늘려나가는 성과를 거두었다.

초급당을 강화하면서 도, 시, 군당일꾼들이 평성시 초급당사업의 주인이라는 입장에서 관조를 끌어붙이고 나서야 하며 실행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평성시당위원회 일꾼들의 사업이 이것을 다시금 강조해주고 있다. **본사기자 최영희**

실천투쟁속에서 자기강령을 키워주어

자강력의 강자뿐만이 아니라 길잡이 있는 것이 오늘날의 지역생태발전군이다. 하대년 자강력의 강자들은 어떻게 자라는가.

단천선박공장에서 일하는 최영일동무가 시당위원회의 부위원장 배영일동무는 논밭에 기일이 더 지고있는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도 그곳을 당당한 책임지도원은 뒤고루모네기에 보여준것은 실행을 높여주는 좋은 계기로 되었다.

시당일꾼들의 실행이 높아지니 초급당사업에 대한 지도에서 중대한 문제를 풀어나가게 되었다. 당시 시당일꾼들이 자기 당위에 내리도록은 순근히 기다리까지 지 되었다.

초급당조직들의 전투력이 높아지는 속에 시에서는 사회혁신공공사업 등 급속도로 일감을 늘려나가는 성과를 거두었다.

초급당을 강화하면서 도, 시, 군당일꾼들이 평성시 초급당사업의 주인이라는 입장에서 관조를 끌어붙이고 나서야 하며 실행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평성시당위원회 일꾼들의 사업이 이것을 다시금 강조해주고 있다. **본사기자 최영희**

단천선박공장 초급당위원회 사업에서

200hp고기계를 무어낼 때는 경험이 있었는가. 우리에게 는 제법밖에 믿을것이 없었다.

그러면서 당일꾼은 팔을 걷어붙이고 원도장무리까지 형한제 작업주의의 일상에 섰다. 신심을 북돋아주는 당조직의 정치사업에 기술자들의 당력이 커졌고 그에 따라 배우의 선행공정은 착각 진척되어나갔다.

380hp고기계를 짧은 시간에 무어내는데 가장 길었던 것은 재단, 용접기능공이 부족했었다. 일부 일꾼들은 우에 제기하여 다른 단위의 기능공들을 지원시켰었던 하는 의향을 표시하였다.

그러나 초급당위원회의 힘장은 단호하였다. 자체 기능공들을 양성하는 문제를 해결할것을 다의하고 새로 배치된 신입의 재단기능공에 대한 단기강습을 조직하였다. 파학교술보급을 통해 배우기일을 앞당길수 있게 한 힘적인 견조조직의 밑바탕에는 이러한 전진있는 기능공양성작전이 놓여있었다.

초급당위원회는 공장기공에 우선순위에 따라 선진공공을 선동력량과 수단을 총동원하여 혁신자들을 제때에 소개선진하고 따라배우도록 함으로써 지역

단천선박공장 초급당위원회 사업에서

200hp고기계를 무어낼 때는 경험이 있었는가. 우리에게 는 제법밖에 믿을것이 없었다.

그러면서 당일꾼은 팔을 걷어붙이고 원도장무리까지 형한제 작업주의의 일상에 섰다. 신심을 북돋아주는 당조직의 정치사업에 기술자들의 당력이 커졌고 그에 따라 배우의 선행공정은 착각 진척되어나갔다.

380hp고기계를 짧은 시간에 무어내는데 가장 길었던 것은 재단, 용접기능공이 부족했었다. 일부 일꾼들은 우에 제기하여 다른 단위의 기능공들을 지원시켰었던 하는 의향을 표시하였다.

그러나 초급당위원회의 힘장은 단호하였다. 자체 기능공들을 양성하는 문제를 해결할것을 다의하고 새로 배치된 신입의 재단기능공에 대한 단기강습을 조직하였다. 파학교술보급을 통해 배우기일을 앞당길수 있게 한 힘적인 견조조직의 밑바탕에는 이러한 전진있는 기능공양성작전이 놓여있었다.

초급당위원회는 공장기공에 우선순위에 따라 선진공공을 선동력량과 수단을 총동원하여 혁신자들을 제때에 소개선진하고 따라배우도록 함으로써 지역

단천선박공장 초급당위원회 사업에서

200hp고기계를 무어낼 때는 경험이 있었는가. 우리에게 는 제법밖에 믿을것이 없었다.

그러면서 당일꾼은 팔을 걷어붙이고 원도장무리까지 형한제 작업주의의 일상에 섰다. 신심을 북돋아주는 당조직의 정치사업에 기술자들의 당력이 커졌고 그에 따라 배우의 선행공정은 착각 진척되어나갔다.

380hp고기계를 짧은 시간에 무어내는데 가장 길었던 것은 재단, 용접기능공이 부족했었다. 일부 일꾼들은 우에 제기하여 다른 단위의 기능공들을 지원시켰었던 하는 의향을 표시하였다.

그러나 초급당위원회의 힘장은 단호하였다. 자체 기능공들을 양성하는 문제를 해결할것을 다의하고 새로 배치된 신입의 재단기능공에 대한 단기강습을 조직하였다. 파학교술보급을 통해 배우기일을 앞당길수 있게 한 힘적인 견조조직의 밑바탕에는 이러한 전진있는 기능공양성작전이 놓여있었다.

초급당위원회는 공장기공에 우선순위에 따라 선진공공을 선동력량과 수단을 총동원하여 혁신자들을 제때에 소개선진하고 따라배우도록 함으로써 지역

단천선박공장 초급당위원회 사업에서

200hp고기계를 무어낼 때는 경험이 있었는가. 우리에게 는 제법밖에 믿을것이 없었다.

그러면서 당일꾼은 팔을 걷어붙이고 원도장무리까지 형한제 작업주의의 일상에 섰다. 신심을 북돋아주는 당조직의 정치사업에 기술자들의 당력이 커졌고 그에 따라 배우의 선행공정은 착각 진척되어나갔다.

380hp고기계를 짧은 시간에 무어내는데 가장 길었던 것은 재단, 용접기능공이 부족했었다. 일부 일꾼들은 우에 제기하여 다른 단위의 기능공들을 지원시켰었던 하는 의향을 표시하였다.

그러나 초급당위원회의 힘장은 단호하였다. 자체 기능공들을 양성하는 문제를 해결할것을 다의하고 새로 배치된 신입의 재단기능공에 대한 단기강습을 조직하였다. 파학교술보급을 통해 배우기일을 앞당길수 있게 한 힘적인 견조조직의 밑바탕에는 이러한 전진있는 기능공양성작전이 놓여있었다.

초급당위원회는 공장기공에 우선순위에 따라 선진공공을 선동력량과 수단을 총동원하여 혁신자들을 제때에 소개선진하고 따라배우도록 함으로써 지역

당세포위원장들의 역할을 높여

강계시산림경영소 초급당위원회 사업에서

강계시산림경영소는 도안의 산림경영부문에 일 할하기로 소문난 단위가이다.

해마다 진행되는 전국적인 산림부흥추진사업에서 여러차례 우수한 평가를 받은 단위가이 되었다.

비결은 여러가지로 볼수 있었지만 중요하게는 초급당위원회가 당세포를 통해 초급당위원회의 중요한 고리로 끌어주고 당세포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비강하게 높여준 것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무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전당의 새로운비밀이 혁명의 기수, 투쟁의 기수가 되어 자기의 책임을 다하게 되면 당세포가 강화되고 우리 혁명은 그만큼 빨리 전진하게 될것입니다.》

몇해전 이곳 초급당위원장으로서 임명되었는 백영동무는 당세포의 사업정형을 료해하는 과정에 하나의 문제를 포착하였다. 그것은 당정책관실에서 당세포위원장들의 역할문제였다.

단위들의 실행과 그것을 뚜렷이 실행해주고있었다. 당세포위원장부리가 어깨를 붙여주고 당세포위원장으로서 이루어나가는 당세포들에서는 전례없는 성과들이 이룩되었

지만 그치지 못한 당세포들에서는 산림부흥추진에서 일차리를 내지 못하고있었다.

보여주기사업에서 거둔 성과가 도내에서 초급당위원회는 다수에는 두중산림경영소당세포를 본보기로 정하고 이 사업을 선도하고 있다.

초급당위원회는 이곳 산림경영소 정경준동무가 자기 당세포위원장의 모범을 따라 당세포를 통하여 그의 성과를 일반화하였다. 그리고 정치적평가와 물질적평가도 안받침하였다. 이런 방법으로 초급당위원회는 모든 당세포위원장과 당원들을 각성시키고 그들이 당정책관실에서 직접 펼쳐나서도록 하였다.

이 나날 강계시산림경영소의 모든 당세포들이 쇄소가 나는 당세포, 전투력이 강한 당세포로 준비되게 되었으며 산림경영과 보호관리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게 되었다.

초급당위원회의 중요한 고리로 끌어주고 당세포위원장들의 전투적기능을 증시해나갈 때 단위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안아올수 있다.

본사기자 최영희

어 지난 시기 분산산림감독인들이 이룩한 성과는 당세포위원장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보여주기사업에서 거둔 성과가 도내에서 초급당위원회는 다수에는 두중산림경영소당세포를 본보기로 정하고 이 사업을 선도하고 있다.

초급당위원회는 이곳 산림경영소 정경준동무가 자기 당세포위원장의 모범을 따라 당세포를 통하여 그의 성과를 일반화하였다. 그리고 정치적평가와 물질적평가도 안받침하였다. 이런 방법으로 초급당위원회는 모든 당세포위원장과 당원들을 각성시키고 그들이 당정책관실에서 직접 펼쳐나서도록 하였다.

이 나날 강계시산림경영소의 모든 당세포들이 쇄소가 나는 당세포, 전투력이 강한 당세포로 준비되게 되었으며 산림경영과 보호관리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게 되었다.

초급당위원회의 중요한 고리로 끌어주고 당세포위원장들의 전투적기능을 증시해나갈 때 단위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안아올수 있다.

본사기자 최영희

당결정은 우리의 생명

통동단풍 1경 2중3대혁명붉은기 걸친 3소대 당세포에서

우리들의 전통적인 명절인 6월 19일은 그에게 있어서는 뜻깊은 날이다. 지금으로부터 23년전 소대가 조직되면서 위대한 장군님께 당세포위원장들이 자기들의 총정의 결의를 담은 편지를 올리고 사랑의 편지를 받아안은 날이 바로 6월 19일이다.

하기에 당세포위원장 인영동무는 올해도 당원들의 모임에서 총정의 편지를 독보한 다음 이렇게 호소하였다.

총정의 편지를 올릴 때의 당원들은 이 자리에 세명밖에 없

다. 그러나 그날에 다진 결의는 우리 당세포위원장들의 영원한 명성이 되어야 한다. 그때의 당원들처럼 살자.

당세포위원장들은 피눈물의 맹세를 다지며 당결정을 세웠다. 그들은 전투목표를 높이 세운데 맞게 세계의 장소에 걸친전투장을 전개하고 고대가 따르 없는 전투를 벌였다.

소대장 김영옥동무를 비롯한 당원들이 돌고리를 열어끼며 소대원들을 이끌었다. 하루 결집계획을 수행하기 전에

백암군 덕립협동농장 제5작업반 1분조 포진에서 있는 일이다.

이른아침부터 당원들 영농작업을 다그치던 1분조 농장원들은 휴식구역이 내려져 작업반분당위원장의 주위에 모여 있었다.

농 그르렸듯이 그날도 부분당위원장은 당포의 중요기사를 독보하고 나서 이렇게 자기 말로 구수하게 이야기하였다.

우리의 아름답고 행복한 꿈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깨뜨리고 하고있다. 허나 미국놈들은 오산하고있다. 농들은 우리 인민이 얼마나 자주혁신이 강한 인민인지를 다는 모르겠다. 더우기

당세포위원장들은 지체없이 통동공업대학에 현지학습단을 조직해줄것을 제기하였다.

본 현장에서 하는 학습전투도 함께 벌였다.

이렇게 그들은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여 앞선 발파방법과 수심전전의 기술혁신을 도입하여 끝까지를 더욱 높여나갔다.

마침내 그들은 지난 6월 18일년간 결집계획을 수행하였다. 당결정은 이렇게 집행되었다.

이곳 당세포위원장들의 투쟁모습에서 우리는 당의 전투적전진 소스에 실천으로 초동화시킨 당세포의 당포의 드높은 열정을 본다. 당결정은 우리의 생명이다! **본사기자 장철범**

백암군 덕립협동농장 제5작업반 1분조 포진에서 있는 일이다.

이른아침부터 당원들 영농작업을 다그치던 1분조 농장원들은 휴식구역이 내려져 작업반분당위원장의 주위에 모여 있었다.

농 그르렸듯이 그날도 부분당위원장은 당포의 중요기사를 독보하고 나서 이렇게 자기 말로 구수하게 이야기하였다.

우리의 아름답고 행복한 꿈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깨뜨리고 하고있다. 허나 미국놈들은 오산하고있다. 농들은 우리 인민이 얼마나 자주혁신이 강한 인민인지를 다는 모르겠다. 더우기

본사기자 재인철

원수격멸의 의지를 만장약시케

백암군 덕립협동농장 제5작업반 1분조 포진에서 있는 일이다.

이른아침부터 당원들 영농작업을 다그치던 1분조 농장원들은 휴식구역이 내려져 작업반분당위원장의 주위에 모여 있었다.

농 그르렸듯이 그날도 부분당위원장은 당포의 중요기사를 독보하고 나서 이렇게 자기 말로 구수하게 이야기하였다.

우리의 아름답고 행복한 꿈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깨뜨리고 하고있다. 허나 미국놈들은 오산하고있다. 농들은 우리 인민이 얼마나 자주혁신이 강한 인민인지를 다는 모르겠다. 더우기

본사기자 재인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외국 손님들 경의 표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28일 빅토르 마누엘 루카스 중앙위원회 국제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에스빠나인민공산당대표단을 비롯한 외국 손님들이 경의를 표시하였다.

손님들은 인민자유위업수행에 쌓아올린 거대한 공적으로 하여 세계정치의 원로로 만민의 심장속에 영생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정도의 마음 안고 절세위인들의 힘찬을 우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생건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을 되새기시며 그들은 수령님들께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손님들은 존장보존실들과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현지지도와 외국방문의 길에서 리용하신 승용차와 전동차, 배, 헬기보존실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에스빠나인민공산당대표단장은 방문목에 에스빠나인민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이름으로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들이신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 가장 충심으로 되는 경의를 표한다. 인민을 위하여 바친 생애 언제나 영원할것이라고 했다.

본사기자 최영희

평양시년로자들의 민족료리경연과 바드민턴경기 진행

경연에서는 민족의 황취가 넘치는 특색있고 도끼고기보양법, 명탕어보양법, 생강부추우유법, 막걸리가 맛이 독특하고 영양가가 높으며 쇠과 조형미를 잘 살린것으로 하여 호평을 받았다.

경연에서는 민족의 황취가 넘치는 특색있고 도끼고기보양법, 명탕어보양법, 생강부추우유법, 막걸리가 맛이 독특하고 영양가가 높으며 쇠과 조형미를 잘 살린것으로 하여 호평을 받았다.

경연에 입선한 참가자들에게 상금이 수여되고 해당한 시상

있었다.

28일 관중들의 열면 응원속에 벌어진 바드민턴경기는 더욱 이채를 띠었다.

인성의 로닌에게도 참선수술의 폐기와 기백에 넘쳐 앞선에서의 밀어치기, 실책공 등 좋은 이들 못지 않은 민첩한 동작과

세련된 기술로 연속 점수를 올리는 선수들의 경기모습은 관중자들의 경탄을 자아냈다.

1부류 남, 녀단식경기에서는 김평, 황성진선수들이, 남, 녀복식경기에서는 리용선, 김봉길, 김정원, 리기숙선수들이, 2부류 남, 녀단식경기에서는 정규진, 김학실선

수들이, 남, 녀복식경기에서는 정경진, 최성리, 리은선, 김선옥선수들이 각각 우승하였으며 생생복식경기에서는 전제일, 피장숙선수들이 1위를 차지하였다.

다시로는 체육관활동장을 통하여 널리자랑을 당과 주기의 고마운 해태속에 혁명선배로, 사회와 가정의 웃음으로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값있게 보람찬 삶을 누리려는 자기들의 긍지높고 행복한 모습을 잘 보여주었다.

본사기자 재인철

제4차 전국농기계전시회 및 창안자회의 진행

제4차 전국농기계전시회 및 창안자회의가 26일부터 28일까지 평양시에서 진행되었다.

우리 나라의 도양조전과 사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며 과학자들과 농민들이 모여있는데서 훌륭한 아이디어를 내놓는것은, 종합도양관리기, 종자정선기, 이음식장 등이 포함할수 있다. 창안자들이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전시회에서는 평양북도 정주시농기계연구소가 특등품, 평안북도농경리위원회가 1등품, 평안남도농경리위원회가 2등품, 함경남도, 남포시농경리위원회가 3등품을 하였다.

창안자회의에서는 세계적인 농기계발전추세의 우리 나라 농

기계설계에 대한 창안자, 기술자들의 인재를 넓혀주며 성능이 높은 농기계를 제조, 구획하여 생산에 적극 도입하기 위한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우수한 평가를 받은 단체들에 우승기와 우승상이, 창안단체에 표창장이 수여되고 해당한 시상이었다.

전국농기계전시회 및 창안자회의는 지역정성의 위력,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사회주의혁명물결이더러 우리국민들 농기계들의 품질을 더욱 높여 올림으로써 제대세력들의 악랄한 제재압살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의 농업발전을 힘있게 추동하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

아세안나라 외교대표들과 대사관성원들 대동강과수총합농장 참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총회 50주년 축하하여 주조 인도네시아, 말라오, 캄보디아, 필리핀의 외교대표들과 대사관성원들이 28일 대동강과수총합농장을 참관하였다.

손님들은 농장에 여러곳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령도업적에 대한 해설을 들은 다음 사회주의선정, 사회주의 무풍도원으로 더욱 훌륭한 전면전 생산과업의 전경을 부감하였다.

주조 아세안위원회 의장인 방방 히엔드라스트 인도네시아공화국 특명전대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대동강과수총합농장을 참관할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파수의 비더어는 마땅한 사과 향기를 맛보며 농장에서 이룩한 성과를 직접 목격하였다.

이곳에 또다시 소개되는 심정이다. 앞으로 농장이 과일생산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

본관 인사부처와 파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특명전대사는 대동강과수총합농장은 상상할 수 없는 대규모 과일생산기지이다. 이곳 농장원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대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명도를 높이 받들고 한바탕한것으로 크게 풍채 피아대를 안아왔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그들은 국제친선전람관을 참관하였다.

손님들은 절세위인들에 대한 만민의 뜨거운 호모심과 지성이 어려있는 선봉들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참관을 마치고 외교대표들은 감상록에 글을 남기하였다.

재일조선고급학교 학생조국방문단 도착

신경화 특사가도조선초중고급학교 교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조선고급학교 학생조국방문단이 28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과학기술보급실운영을 심숙있게 할해간다. -대통령영도당에서- 본사기자 리종규 특필

지금 이 땅은 전고미문의 《북 원 전과피》를 운운하며 전진폭을 대상으로 용납 못할 침략전쟁을 도발하려는 미국의 트럼프에 대한 국민적 분노도 높고 있다.

수많은 언론매체들과 작게는 민중이 트럼프의 유엔총회연설은 《죽음발언이 아니라 사전에 작성된 것》, 《미국이 중국 표방해온 《대북 경제공격》과 《예비전쟁》을 넘어 전면전까지 예상해야 하는 불길함을 주는 발언》으로 평가하면서 《전쟁발발은 시간문제》라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경향각지에서 《아수의 본성을 드러낸 트럼프》, 《서울과 평양을 잇는 것을 새터미로 만들려는 방안》으로 단죄하며 《지구위의 큰 임업어린 늑대는 재계, 전경미치광이 트럼프를 잡아치우자.》고 웨치고 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치고 북을 격대하지 않은 사람이 없지만 트럼프와 같이 초보적인 인격도 갖추지 못한채 유엔무대를 일대 폭언의 만무장으로 전락시키며 《북침범》과 우의 민족의 집합을 노린 상상 못할 악담을 그처럼 공공연히 내뱉은 미치광이괴수는 없었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는 세계평화와 안전을 온한다는 유엔 무대에서 큰입술은 주권국가인 북의 명성과 전락적지위를 회복시키려고 미친게처럼 뛰어들어 트럼프의 폭언을 인디언을 핏족시킨 양키 괴수만이 제정수 있는 천인공노할 망발로, 북쪽아나라 《한반도전쟁을 완전히 초초화하고 우리 민족을 멸살시키려는 도발적인 대살륙전선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가 성토문 발표

인터넷홈페이지 《구국전선》에 의한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가 유엔총회무대에서 우리 국가를 《완전파괴》하겠다는 미치광이날을 불어낸 미국집권자를 규탄하는 성토문을 발표하였다. 성토문은 다음과 같다.

전국민적분노를 러쳐 미치광이괴수의 천인공노할 《완전파괴》망언을 강력히 성토한다

언어로 막연하면서 전국민의 이름으로 존엄히 규탄한다. 자칭 《초대국》의 권력자로서의 초보적인 콘리와 체보를 장그리 폐인처럼 트럼프의 광대는 히틀러와 무솔리니, 히틀러 부위 등 악명을 떨친 동서고금의 정치장제들을 무색케 하는 총명의 극치이다. 애초에 트럼프는 권력욕에 사로잡혀 민주당과 공화당에 많은 선거자금을 기부하고 당적을 바꾸어던 정치인단자이고 국회의원이거나 주지사, 행정관료직을 헌년도 맡아본적 없는 정지못한 것이다. 아이에게는 중학교에서 너무나 말썽을 부려 13살에 벌써 퇴학당할 정도로 불행하였고 어른이 되었을 때에는 불법적인 언동과 무지막지한 추악행사로 저질인간, 뒤물목장제로 취급당했다. 면대적이고 추잡한 사생활과 상스러운 언행으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만나 못해 자기보다 24살이나 아래인 딸같은 녀자를 집합하여 세번에 인해로 만났고 그것도 성하지 않아 인애의 라세를 사직되어 잡지표지까지 내게 한 라락한대로 라락한 호

쇄함이 다름아닌 트럼프이다. 이렇듯 세상에 버어지나를 때부터 정신적기행하였고 성숙기에는 불망나니로 변화했으며 늑대리가 되어서도 환상적요인의 지대중세에 빠져서 정신병사의 허비다에서 세계를 과대모로 끌어넣을 위대한만한 폭언과 망발이 지칠없이 미치광이같은 어찌 보면 크게 놀랄 일은 아니다. 《누구도 못 말리는 괴짜》, 《은 기호》, 마리아두목, 정치초초도인 트럼프가 미국정치의 우두머리자리를 차지한것은 침략과 살인 등 온갖 죄악으로 이어진 악의 나라 미국에서 만 있을수 있는 총독사변이다. 트럼프는 《장제두목》, 《신비불러》로 평명되는에 따라 미국정부는 트럼프가 미군정치의 우두머리자리를 차지한것은 침략과 살인 등 온갖 죄악으로 이어진 악의 나라 미국에서 만 있을수 있는 총독사변이다. 트럼프는 《장제두목》, 《신비불러》로 평명되는에 따라 미국정부는 트럼프가 미군정치의 우두머리자리를 차지한것은 침략과 살인 등 온갖 죄악으로 이어진 악의 나라 미국에서 만 있을수 있는 총독사변이다. 트럼프는 《장제두목》, 《신비불러》로 평명되는에 따라 미국정부는 트럼프가 미군정치의 우두머리자리를 차지한것은 침략과 살인 등 온갖 죄악으로 이어진 악의 나라 미국에서 만 있을수 있는 총독사변이다.

생각만 해도 소름끼칠만큼 경악스러운 이 광경앞에서 북이 어찌 팔방을 끼고 보고만 있을수 있겠는가. 결국은 미치광이 트럼프가 아무렇게나 던진 대폭탄은 말 한마디가 이 땅에 불을지울 수 없는 불이 되고말이 되었다. 《한반도라는 땅덩어리자체를 지구상에서 완전히 없애려고 우리 민족도들을 집멸시켜서라도 만민지주의 보우인 북을 거머이 라고하여 동

북아시아와 전세계에서의 미국의 패권정치를 유지하려는것이 바로 트럼프의 망발에 걸린 지의이다. 트럼프의 《완전파괴》폭언은 단 순히 북에 대한 미국의 적대시책, 북주변에 대한 미국의 대살륙 선상공에 날아들어 실탄폭격공연을 강행하는것은 물론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수 없다. 핵방공포합력단들과 핵잠수함들이 《한반도》와 그 주변지역에 불려지고있는가 하면 하늘과 땅, 바다를건너 도처에서 수심깊은 대폭탄이 떨어진 각종 정경연습이 매일같이 벌어져 화악내가 거시될 날이 멀지않았다. 핵방공포합력단들과 핵잠수함들이 《한반도》와 그 주변지역에 불려지고있는가 하면 하늘과 땅, 바다를건너 도처에서 수심깊은 대폭탄이 떨어진 각종 정경연습이 매일같이 벌어져 화악내가 거시될 날이 멀지않았다. 핵방공포합력단들과 핵잠수함들이 《한반도》와 그 주변지역에 불려지고있는가 하면 하늘과 땅, 바다를건너 도처에서 수심깊은 대폭탄이 떨어진 각종 정경연습이 매일같이 벌어져 화악내가 거시될 날이 멀지않았다.

미국이 유엔총회무대를 지구상에서 없애버렸다는 트럼프광복투쟁과 그에 아무굴종하는 현 당국의 항방없는 천이공노할것은 미구에 단죄를 해전정의 함락한 제년운에 함께 하고있다. 미국의 핵전쟁불용자가 《한반도》 《완전파괴》라는 대세앙을 부르며 온 민족의 운명을 시시각각 위협하고 있다. 이제 우리 국민은 미국의 말갈에

기밀한것도 모자라 최악의 전쟁위협, 극단적 절멸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트럼프와 같은 전쟁미치광이의 발작중세와 천이사태미국노들의 비무한 추대로 하여 이 땅의 모든것이 안전히 파괴되고 민족이 핵전쟁의 참화를 당하는것을 절대로 수수방관할 수 없다. 전국민은 트럼프의 망발을 강력성토하며 미국의 북침전쟁행동을 단호히 깃부서버리기 위한 성전에 총발기해내서야 한다. 트럼프의 망발을 통해 드러난 미국의 《한반도초초화정책》의 중심을 폭파로 알고 미국을 백색하고 미군기지를 철폐하며 미군을 끌어내거 위한 범국민적투쟁을 가일차게 벌려나가야 한다. 민족운을 노리는 미국의 발악적인 북침전쟁행동을 분쇄하기 위한 투쟁에 총매진하라!

경향각지에서 반미반전쟁화수로류정의 불길은 더욱 거세지게 지퍼를 리라! 노예의 사슬, 치욕의 울기미 《한미동맹》 깨버리고 민족의 존엄을 되찾자! 외세와 공모결탁하여 동족대결과 북침전쟁행동을 추구하며 국민을 미국의 핵폭탄으로 섬겨버리는 사대매국노들을 척사의 시궁창에 처박아버리라!

전국민이 일치단결하여 침략자와 매국노를 쓸어버리고 반미총동맹의 최후승리를 안이오자!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2017년 9월 28일 서 울

미국의 세계제패는 어리석은 망상이다

트럼프의 집권후 미국의 히스테리적인 오만성은 극대해 달하였다. 세계최대의 공성외교부대라고 하는 유엔총회미팅에 나선 트럼프는 조선의 《완전파괴》라는 전대미문의 무지막지한 미치광이말을 망발 붙여냈다. 그뿐아니라 트럼프는 이란에 대하여 때로 참치런하고 독재로 자국인을 위협하고있다고 힐끔였으며 배대수엘라에 대해서는 이나래에 조성된 정세악화로 인하여 사회제도가 일을 하지 않도록 되어있는데 있다고 악랄하게 비난하였다.

상대를 가리지 않고 마구 불어붓는 미친개처럼 불어대는 늑대리 트럼프의 광대는 전세계가 경악하고있다. 많은 나라 대표들이 우려와 반감, 분노를 표시하였다.

미국집권자도, 사회제도나 이런 미치광이를 국가정권자로 내세웠다. 미국의 입국증상이라고 할수 있다. 얼마전 중국 헌에서 한 나이제리아 사람이 미국 CNN방송 사회자에게 《당신네 나라는 미쳤다.》고 성토했었다. 미국 뉴욕에서 살고있는 한 아랍인도너성을 《나는 유대인으로서 나의 거지같이 오한는 미국식가치관과 거리가 멀다는것을 깨닫게 되었다. 유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하였다.

한 외국은 이런 사실들에 대해 전하여 미국에서 국수가 튀죽박죽이 되고있으며 사람들이 대성실하고있다고 보도하였다.

부동산투기업자였던 트럼프의 집권후 미국에서 조성되고있는 국내정책의 혼란상태가 대외정책에 그대로 반영되고있다. 경제대우의 기질과 무예함을 벌타다까지 드러내는 트럼프의 망발은 쇠비뿔박으로 걸잡을수 없이 굴뚝을치는 이발매치 승냥이 미제국주의의 탄압적자본무림의 한 표현이다. 미국의 국제사회에서 정치, 외교적으로

로 고립, 배격당하고있다. 미국의 집권자들에게 있어서 대외정책은 권력위기가 조성될 때마다 그 구멍을 메우는 수단으로 되어왔다. 대내정책의 실패로 잃은 정수를 보충하는데 대외정책은 중요한 작용을 하였다. 트럼프집권시기가 와서 그것마저 완전히 엉망진국이 되었다. 《미국제일주의》를 떠들며 세계에 도전해나섰기때문이다. 미국이 인류의 미래와 직결된 지구온난화문제를 해결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짓밟고 배리협정에서의 탈퇴를 선언한것은 그 한 실례이다. 그밖에 세계곳곳에서는 《트럼프가 인류가 사는 행성을 전쟁을 선포했다.》고 분노하는 목소리들이 세계를 울려나왔다. 도이월한도의 함부르에서 진행한 20개국수뇌자회의를 계기로 미국은 더욱 불려우고 고립되었다. 비거지고 고립된채 배리협정의 결연적인 결과이다.

다른 나라와 민족들의 자주권을 함부로 유린하고 제세압박과 군사적위협공갈의 몽둥이를 마구 휘둘러대며 세상을 소란케 하는 미국의 대외정책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도 라판아메리카에서도 배격을 면치 못하고있다. 특히 우리 국가의 자위적조치를 결코하며 전대미문의 만공화국제, 봉쇄소용을 벌리고 유엔무대에서 한 주권국가들 《완전파괴》기질을 한 반인륜적인 망발로 전세계를 경악케 하는 전진폭적인 광대는 미국이아랍이 이 행성의 화관이라는것을 단죄하여 보여주었다.

최근 미국의 퓨언구테라가 수십개 나라를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다른 세계 각국 인민들이 날이 갈수록 미국이 절없었다고 확신하고있다. 악의 중국이 점점 시대대우로 밀려나고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군사적우세라는것도 세계도처에서 만신장이 되고있다. 미국집권자들의 입에서는 다른 나라들에 대한 군사력사용이라는 망언들이 저 없이 튀어나오았다. 그 밑바닥에는 저들의 군사력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과신이 깔려있다. 게다가 미국은 비대한 군사력을 세계 제대야방성전의 거동으로 삼아왔다. 그 거동은 위헌이라고도, 지난 시기 제기위에 거슬러는 나라들에 대한 평정을 떠들며 단죄하는데 주역을 휘둘러대던 미국의 군사적힘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포심이 조소로 바뀌고있다. 미국의 배리협정의 실패자이 브레진스키가 세계제패를 위한 미국의 중점지역인 지역들에서 침략정복의 군사작전하고있을것을 통해서도 미국의 군사적위협성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미국이 대중중독기토를 거둬가고 실행하고있는 것은 핵전쟁을 실행해 나갈수 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전쟁에서 막대한 인적, 물질손실을 입었다. 수많은 사상자를 내고 천문학적액수의 자금을 낭진하였다. 그러나 평정은 고사하고 장기전의 수렁상에 빠져 열혈매고있다. 미국의 군사적힘이라는것이 이런 의외정세에 불과하다. 군사적강권에 의한 미국의 패권정책은 군사적강권이 없다는것을 용면으로 입증하는 것이 바로 조선반도이다. 21세기에 불어와 미국이 세계제패전략의 핵심으로 내세운것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전략이다. 그 목표는 지역에서 미국의 최고의 군사적우세를 세계제패전략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마련하는것이다. 그것이 우리 국가에 의해 파면이 되면하였다. 수많은 나라들에 대한 침략과 군사적간섭을 일삼으면서 미당국자들의 광복에는 마음만 먹으면 어떤 나라든지 침략할수 있으며 저들의 행동에는 처벌이 따를수 없다는 오만무례한 침략자의 특성의

미국집권자들의 입에서는 다른 나라들에 대한 군사력사용이라는 망언들이 저 없이 튀어나오았다. 그 밑바닥에는 저들의 군사력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과신이 깔려있다. 게다가 미국은 비대한 군사력을 세계 제대야방성전의 거동으로 삼아왔다. 그 거동은 위헌이라고도, 지난 시기 제기위에 거슬러는 나라들에 대한 평정을 떠들며 단죄하는데 주역을 휘둘러대던 미국의 군사적힘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포심이 조소로 바뀌고있다. 미국의 배리협정의 실패자이 브레진스키가 세계제패를 위한 미국의 중점지역인 지역들에서 침략정복의 군사작전하고있을것을 통해서도 미국의 군사적위협성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미국이 대중중독기토를 거둬가고 실행하고있는 것은 핵전쟁을 실행해 나갈수 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전쟁에서 막대한 인적, 물질손실을 입었다. 수많은 사상자를 내고 천문학적액수의 자금을 낭진하였다. 그러나 평정은 고사하고 장기전의 수렁상에 빠져 열혈매고있다. 미국의 군사적힘이라는것이 이런 의외정세에 불과하다. 군사적강권에 의한 미국의 패권정책은 군사적강권이 없다는것을 용면으로 입증하는 것이 바로 조선반도이다. 21세기에 불어와 미국이 세계제패전략의 핵심으로 내세운것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전략이다. 그 목표는 지역에서 미국의 최고의 군사적우세를 세계제패전략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마련하는것이다. 그것이 우리 국가에 의해 파면이 되면하였다. 수많은 나라들에 대한 침략과 군사적간섭을 일삼으면서 미당국자들의 광복에는 마음만 먹으면 어떤 나라든지 침략할수 있으며 저들의 행동에는 처벌이 따를수 없다는 오만무례한 침략자의 특성의

미국이 대중중독기토를 거둬가고 실행하고있는 것은 핵전쟁을 실행해 나갈수 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전쟁에서 막대한 인적, 물질손실을 입었다. 수많은 사상자를 내고 천문학적액수의 자금을 낭진하였다. 그러나 평정은 고사하고 장기전의 수렁상에 빠져 열혈매고있다. 미국의 군사적힘이라는것이 이런 의외정세에 불과하다. 군사적강권에 의한 미국의 패권정책은 군사적강권이 없다는것을 용면으로 입증하는 것이 바로 조선반도이다. 21세기에 불어와 미국이 세계제패전략의 핵심으로 내세운것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전략이다. 그 목표는 지역에서 미국의 최고의 군사적우세를 세계제패전략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마련하는것이다. 그것이 우리 국가에 의해 파면이 되면하였다. 수많은 나라들에 대한 침략과 군사적간섭을 일삼으면서 미당국자들의 광복에는 마음만 먹으면 어떤 나라든지 침략할수 있으며 저들의 행동에는 처벌이 따를수 없다는 오만무례한 침략자의 특성의

미국이 대중중독기토를 거둬가고 실행하고있는 것은 핵전쟁을 실행해 나갈수 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전쟁에서 막대한 인적, 물질손실을 입었다. 수많은 사상자를 내고 천문학적액수의 자금을 낭진하였다. 그러나 평정은 고사하고 장기전의 수렁상에 빠져 열혈매고있다. 미국의 군사적힘이라는것이 이런 의외정세에 불과하다. 군사적강권에 의한 미국의 패권정책은 군사적강권이 없다는것을 용면으로 입증하는 것이 바로 조선반도이다. 21세기에 불어와 미국이 세계제패전략의 핵심으로 내세운것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전략이다. 그 목표는 지역에서 미국의 최고의 군사적우세를 세계제패전략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마련하는것이다. 그것이 우리 국가에 의해 파면이 되면하였다. 수많은 나라들에 대한 침략과 군사적간섭을 일삼으면서 미당국자들의 광복에는 마음만 먹으면 어떤 나라든지 침략할수 있으며 저들의 행동에는 처벌이 따를수 없다는 오만무례한 침략자의 특성의

여러 나라 인터넷들 특집

《플래그의 행진》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69돛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의 인터넷홈페이지들이 7일부 10일까지의 기간에 특집하고 글을 올렸다. 브라질선공정적연구센터는 어버이수령님의 영성이수령님을 모시고 특집한 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69돛에서 우리 공화국의 향원과 강화를 위한 열심 노력의 신의 나라를 위하여》를 올렸다. 미국의 핵전쟁불용자가 《한반도》 《완전파괴》라는 대세앙을 부르며 온 민족의 운명을 시시각각 위협하고 있다. 이제 우리 국민은 미국의 말갈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불러》의 핵강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은 주체의 핵강조, 세계적인 군사강국을 온 세상에 안연한 빛을 뿌리고있다. 반민권력사에서 조선의 지위 이 이처럼 위상의 경지에 오른적은 없었다. 조선은 세계도처에서 강권과 전횡을 무렵어 절대군주제형 세하는 미국도 감히 어찌지 못하는 강국이다. 조선의 핵억력은 철쭉하고 가증스러운 미국의 특판과 전횡을 짓부시고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게 하는 밀요적인 담보이다. 수령이 위대하면 코지 않은 나라도 세계가 우리더보는 강국으로 손주처음을 수 있고 나라와 민족의 존엄이 만방에 펼쳐지게 된다것이 조선의 력사가 보여 주는 렬이다. 영국선공정적연구위원회는 《한반도의 신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이런 글을 게재하였다. 이 세상 모두가 애제 바라를 짓부시고 바로 진정한 조국, 참다운 인민의 나라이다. 그러나 바란다고 하여 어떤 행복의 요망에 누구나 다 안가지 못한다. 하다면 그러한 삶의 좋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인류사에 가장 길썬 한 대서 인이 지위인 집일성주에서 장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조선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현명 한 명도에 의하여 인민

대중제일주의가 철저히 구현된 길의 락으로 통일번영의 길만을 걸어왔다. 위대한 수령님들과 똑 같은신 존경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인민중심,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철을 펼치시어 조선은 인민이 주인된 사회주의락으로 더욱 훌륭히 가꾸어주시었다. 도이월한대제연단 《자주》는 조선의 불행의 궤도에는 제목으로 우리 공화국을 장진하고 승리의 한길로 이끄실으로써 자주독립국가건설의 본보기를 마련하신 위대한 수령님과 탁월하고 세련된 명도로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힘있게 주도해 나가신 위대한 장군님을 칭송하는 글을 올렸다. 배대수엘라 마라카시배방자 사범실험대 학사학부 주지사 유엔수조조선은 인터넷홈페이지 《주체사상》에 《자주의 핵강국》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은 우리 공화국이 미국의 끊임없는 핵위협에 대처하여 자위적억력을 백방으로 강화해온데 대해 시술하고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은 적대세력들의 위협과 공갈에 뒤걸음치거나 순종한것이 아니라 높은 자주의성, 두말한 신념과 배양고 못서나섰다. 조선의 핵보유는 세계제패를 노리는 핵강국의 핵우세를 패권을 일제에 무력화시킴으로써 지극히 부당한 가혹한 핵무기를 사용에 마땅치 않음은 총독사변이었다. 하기에 광범한 국제사회의 조선의 핵보유에 박수갈채를 보내고있는것이다. [조선중앙통신]

불망나니 트럼프는 조선인민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해야 한다

총련일군들 강조 총련일군들이 유엔총회연설에서 우리 공화국을 《완전파괴》 하겠다고 선전코를 한 미국의 늑대리미치광이의 망언을 규탄하여 22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조일연 총련 대표도 본부 위원장은 담화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영적적인 심령에 걸린 본부원하 일군들과 동료들은 조국의 천만군민과 똑같은 심정으로 우리 조국에 대한 가장 크악한 선전공고와 불법무림의 만공화국 《제세제》조작의 장본인이 늑대리미치광이 트럼프에 대한 치솟는 분노를 글치 못하고있다고 밝혔다. 그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역사적인 영혼을 높이 받들고 최후 단계에 들어선 반미대결전선을 수령정사용원위로 확고히 일관시키고 애국애민을 공격적으로 벌려야 한다 모든 일군들과 동료들이 단합된 힘을 최대한 발휘함으로써 사회주의조국과 총련조직, 풍포를 사수하는 영예로운 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해나갈 의지를 표명하였다. 부령우 총련 오사카본부 위원장은 담화에서 만공화국《제세제》의 저지침이 트럼프에 대한 치솟는 분노를 글치 못하고있다고 밝혔다.

경히 단죄규탄하면서 불망나니 트럼프가 반인륜적인 망발을 당장 철회하고 조선인민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경사승 위하고 북측보다 더 강한 어머니조국을 끝까지 보위하여 조국의 평화와 자주적통일을 기하여 성취하기 위한 투쟁의무에 더욱 일차적 열쳐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김용주 제일공정선년총령 《조정》 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은 담화에서 자신께서 선포한 길은 옳았으며 끝까지 가야 할 길임을 확증해주셨다고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렬사적인 성명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밝혀 주시고 오라는 원수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따라 끝까지 가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철리론 심정에 새겨주었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전체 조일연일군들과 제일 조선정년학생들은 모든 비록 이익명에 있어도 그 어떤 힘과 용감에도 그럭없이 사회주의 조국과 생산군용을 같이하여 수령정사용원위, 조국보위, 총련조직사수의 성스러운 투쟁의 선봉에서 조선정년의 기상을 세게 만양에 높이 펼쳐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성명은 미국이 남조선괴뢰들과 함께 해마다 수십만명의 병을 교제하며 배수침략의 전쟁을 일으켜 수많은 인민들을 살해한 미국의 진면모를 그대로 보여 주었다고 성명하는 주장이었다. 성명은 트럼프가 유엔총회에서 한 망발을 상상승 초월하는 것으로 회고찬계를 넘어선 폭언이라고 비난하였다. 공화국의 《완전파괴》를 꾀한 트럼프의 망발을 논명하며 조선인민앞에 당장 사죄할것을 성명은 강력히 요구하였다. 성명은 트럼프의 자주권수호와 경제발전을 위한 조국인민들의 투쟁에서 성과를 거둘기 바란다 고 강조하였다.

성명은 미국이 지구상에 자기들이 다른 나라 인민들을 마음대로 침범하는 독재적권력을 가진 일국제국을 만들어 세계제패를 실현하기 위해 날뛰었다고 까발렸다. 부산시민단체들 집회 진행 남조선인터넷신문 《자주시보》에 의하여 국민주권단체 부산준비위원회와 부산인민전선대의 풍동주최로 24일 부산항 8부두앞에서 《트럼프는 그 입 다물라》는 주체의 집회가 진행되었다. 집회에서는 청년학생들과 어린이들이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반대하는 남조선인민들의 심정을 반영한 반미주의의 노래들을 불러 참가자들의 투쟁열기를 북돋아주었다. 집회자들은 최근 북에 대한 트럼프의 패권적망발을 통해 미국의 침략본성이 여지없이 드러났다고 규탄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절대로 부정할수 없는 성노예범죄

1997년 3월에 출판된 《정부조사 공권인민부판재자료집성》이라는 제목으로 된 도서의 일부 내용이 공개되었다. 도서는 1938년 2월 일본정시청이 작성한 《시크리우부내유괴의사건에 관한 진》 등의 공식문건들도 들어있다고 한다. 특히 일본군의 성노예범죄와 관련한 기록이 밝혀져 있다. 그에 의하면 성노예범죄는 일본군이 그들을 길질한 후 현지주제에 수형 총명사관에 호보하였으며 총명사관은 내부성애의뢰하고 내부성은 각 정장성이 명명을 내리라는 방침으로 진행되었다. 어느 한 대학의 연구소 교수는 《일본당국은 위안부문제에 대해 법적책임을 졌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지만 일본의 각 부처가 그에 관하여 공범으로 드러났다.》고 하면서 《법적책임을 면할수 없게 됐다.》고 주장하였다. 이로써 성노예범죄에 일본당국이 깊숙이 관여했다는 것이 다시금 확증되었다. 지난 세계 전반기 일제는 호 전적분쇄와 야수적거질을 포괄적으로 드러내놓았다. 과거 일제는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 본은 세계를 패권정위함을 불이오고 평화를 파괴하는 미국의 피행을 단죄하는 선전활동을 벌였다. 여러 나라들에서는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일본의 과거범죄를

부분별로 발굴 및 연구정리하는 본과들을 내오고 숨겨진 범죄의 진실을 공개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일본군성노예범죄의 정상을 밝히기 위한 사업도 그 일환으로 되고있다. 결과 통영사도 도서, 판계자들의 진술내용 등 수많은 사실자료들이 세상에 공개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당국자들은 매일이 나서서 일본군성노예범죄에 《국가가 관여한 자료가 없다.》, 《증거자료가 부족하다.》고 하며 성노예범죄의 진실을 한사코 부정하고있다. 이때가 정권전환시기부 성노예범죄에 당시 일본당국이 관여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도수가 한계를 넘어서고있다. 미지 일본군성노예범죄가 산발적으로 개별적인물들을 의하여 감행된것처럼 떠돌아대고 있다. 1993년에 일본내각방관장관 고노가 불충분하게나마 일본군성노예들의 모집, 이송, 판피가 본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관권에 의하여 강압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하는 담화를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배정하여 유겨내었다. 하다면 전 일본정권체력이 무엇때문에 한사코 성노예범죄의 정구개임을 부정하고있는가 하로 감행되었다. 그것은 우선 군국주의를 고취

하는에 장애물로 되기때문이다. 현재 일본에서는 성노예범죄를 제회하고 징벌하도록 지시한 특구법정자들이 《영웅》으로, 《애국가》로 찬미되고있다. 침략전쟁을 《영웅의 전쟁》으로, 라민족에 대한 식민지지배를 발전과 번영을 위한 《협력》과 《기여》로 위대한 공과사를 과지고 학생들을 교육한데 있다. 독재는 그로된 력사를 미화분식하여 세 세대들에게 심어줌으로써 그들을 해외침략의 물레로 거꾸어내게 되었다. 또 세 세대를 다시는 그런 반인륜범죄의 길을 답습하지 말아야 한다는것을 일신하고 현 반민중적배종의 군국화책동에 반기를 들고나설수 있다. 다음으로 어떻게 하나 생존자들이 사망할 때까지 시간을 끌고 사죄와 배상을 회피하고 그 책임에서 벗어 나기 위해서이다. 지난 세계 일본의 침략행동은 우리 나라를 비롯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많은 나라들을 대상으로 특히 성노예문제에는 일본이 감